

커피 머신 100년 기록을 한눈에 MuMAC

이탈리아 심발리 그룹이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2012년 개관한 커피 머신 박물관 MuMAC. 밀라노에 자리한 이곳에서는 심발리 그룹이 걸어온 커피 머신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세계 커피 마니아들이 꼭 한 번은 찾는 곳이다.



1

전설적인 브랜드 라심발리 LaCimbali와 웨마 Faema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전문 커피 머신 제조 기업인 심발리 그룹 Cimbali Group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건립한 커피 머신 박물관 MuMAC (Museum of Coffee Machine). 밀라노 남쪽 심발리 그룹 건물 인근에 놓인 이곳은 창고로 사용했던 건물로, 1,800㎡ 공간에 100년 심발리 그룹 역사를 담았다. 전시 공간과 다목적 공간으로 구분했으며 파올로 발자넬리 Paolo Balzanelli (아르키스파치오 Arkispazio 대표)와 발레리오 코메띠 Valerio Cometti (+V12 Design 설립자)가 설계를 맡았다.

커피 컵을 들어 올릴 만큼 매우 강력한 커피 향에서 영감을 받은 물결 모양을 복합 재질의 '라심발리 레드' 슬롯으로 연출한 외관은 밤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조명이 작동해 화려함을 뽐낸다. 또한 야간에는 MuMAC 내부 에너지를 전달하듯 매력적인 후면 발광 그리드를 볼 수 있다.

MuMAC 입구를 관통하는 커피 색 벽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입구를 지나면 아홉 그루 나무가 있는 정원이 놓였다. 이 아홉 그루 나무로 똑같이 나뉜 열 개 공간은 100년의 심발리 그룹 역사와 성과를 보여준다. 박물관 전시실은 심발리 그룹의 처음부터 현재까지를 여섯 시기(The early years(초창기), The age of Rationalism(이성주의 시대), Invention of the lever(레버 발명), Under the banners of design(디자인 배너), The International dimension(국의 시장 진출), The New Millennium(뉴밀레니엄))로 나눠 꾸몄다.

아르데코(장식미술) 전형을 보여주는 이중천장과 포스터가 인상적인 'The early years(초창기)'를 지나면 이탈리아 파시스트 시대에 유행한 돌기둥(콜로네이드)과 직교선으로 연출한 격자무늬 대리석 진열대가 시선을 압도하는 'The age of Rationalism(이성주의 시대)'가 나타난다. 이곳에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커피 문화를 보여주는 바 Bar와 당시 인기를 끌던 캔탈레버식 커피 머신이 놓였는데, 특이한 방식으로 배치한 거울을 통해 관람객들은 당시 훌륭한 커피 머신들의 양쪽 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Under the banners of design(디자인 배너)'에서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디자인 명작 커피 머신 컬렉션이 자리한다. 당시 디자인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칠 만큼 머신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디자인들이 이 시기에 등장했다. 'The New Millennium(뉴밀레니엄)' 전시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빨간색으로 칠해 모던하고 강렬한 이미지가 일품이다. 최신 커피 머신 집합 장소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한 디자인이 가득하다. 특히 빨간색 벽으로 둘러싸인 내부에는 발레리오 코메띠가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 새로운 LaCimbali M100 커피 머신이 놓였다. 방문객 이목을 가장 집중시키는 곳으로, 머신이 대담하게 모두 분해된 상태로 걸려 있다. 심발리 그룹이 100년 동안 축적한 커피 머신 기술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

정의 홍장기 자료 제공 아르키스파치오, 발레리오 코메띠 +V12 디자인, 사진 안젤로 마르쿠찌 & 아쏘시아티



12 빨간색 벽으로 둘러싸인 내부 한편에는 발레리오 코메띠가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 새로운 LaCimbali M100 커피 머신이 모두 분해된 상태로 걸려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은 심발리 그룹이 100년 동안 축적한 커피 머신 기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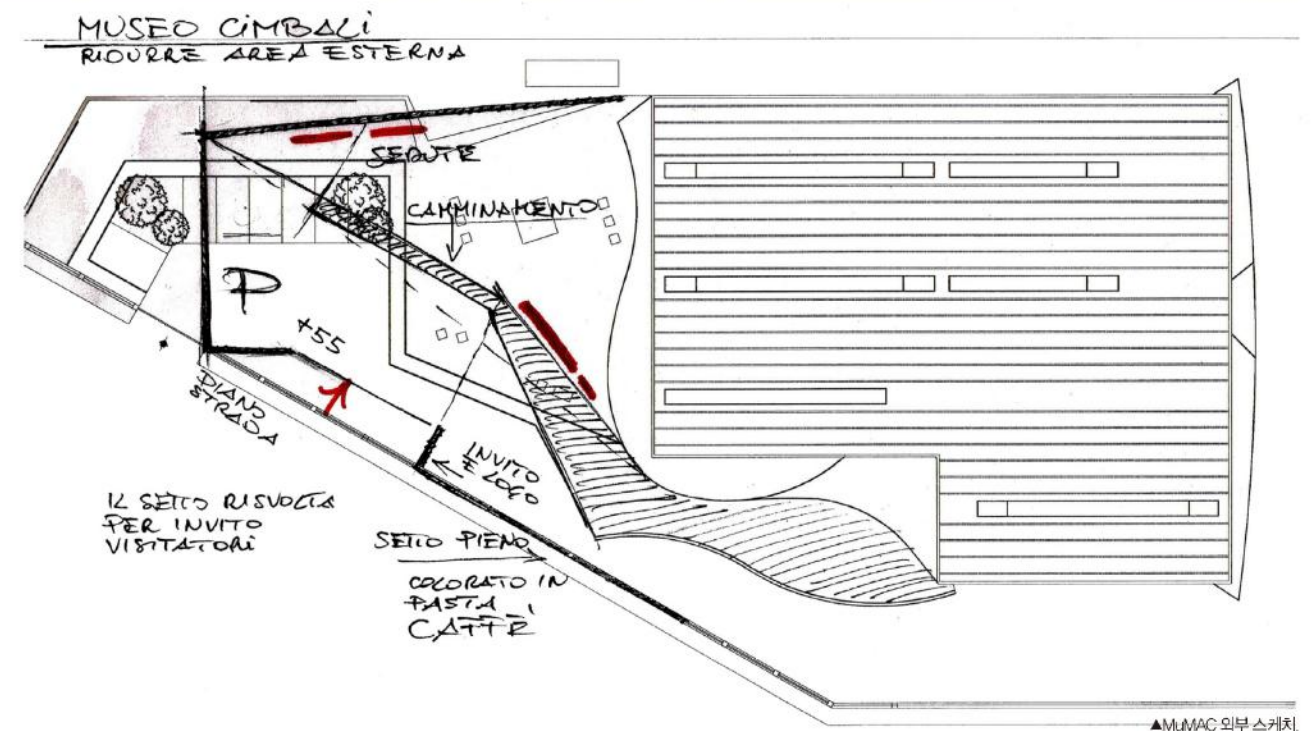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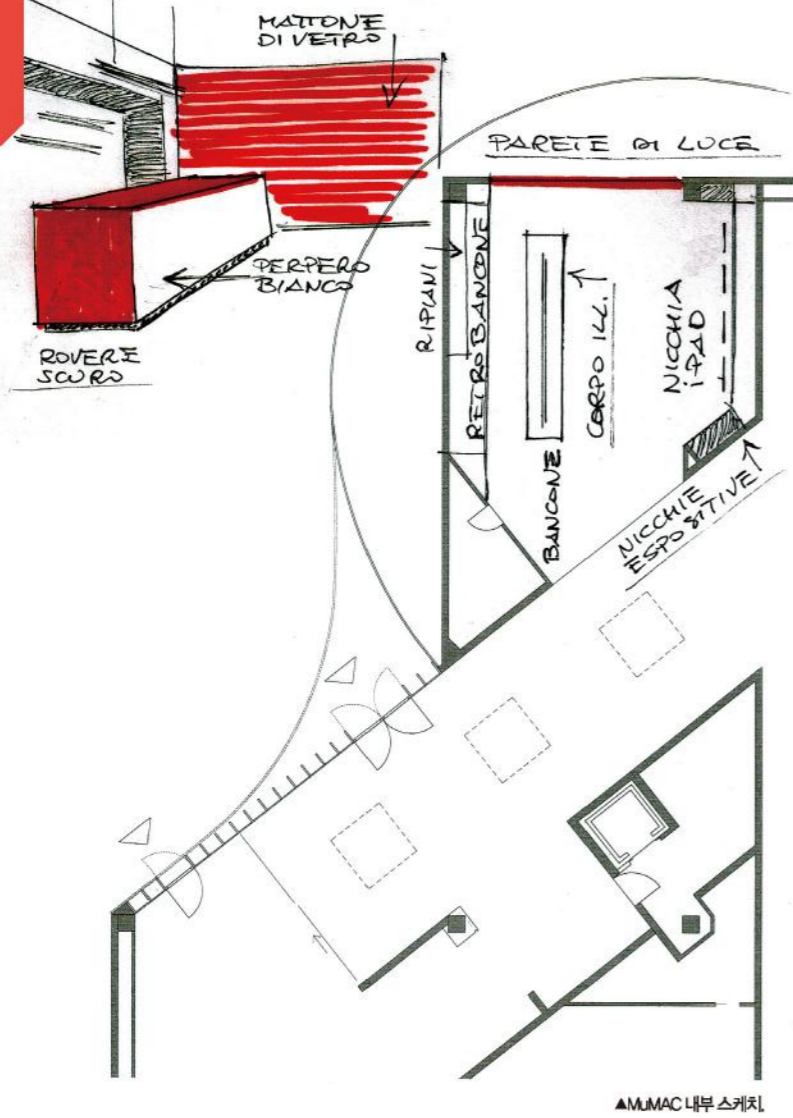
Outside Space



12 외부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인 곡선은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생두를 반으로 갈랐을 때 중앙에 드러나는 곡선을 모티브로 작업했다.



Inside Space



M.M.M.A.C. 내부 스케치

12345 전사실 동선을 따라 이동하다보면 심발리 그룹 100년간 써 내려 놓은 커피 마신 기록이 곳곳에 놓여 있다. 심발리 그룹의 처음부터 현재까지를 여섯 시기(초창기, 이성주의 시대, 레버 발명, 디자인 베너, 국외 시장 진출, 뉴밀레니엄)로 나눠 꾸몄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파올로 발자넬리 & 발레리오 코메띠



밀라노 폴리테크닉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파올로 발자넬리는 졸업 후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모교에서 조교수로 지냈다. 학교를 떠나 밀라노, 스트라스부르(프랑스), 런던(영국) 등에서 프리랜서 건축가로 활동하던 그는 2000년 자신의 회사 아르키스파치오 ARKISPAZIO를 세웠다.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사무실 등의 건축,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했고, 박물관과 박물관 전시 부스 디자인에도 참여했다. 그의 친구, 발레리오 코메띠와 전문가로 맺은 강한 유대는 심발리 그룹 100주년 기념 M.M.M.A.C.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같은 대학에서 기술공학을 전공한 1975년생 발레리오 코메띠는 2005년 호주에서 돌아온 뒤, 발레리오 코메띠+V12디자인을 세웠으며 브라운베가, 라삼발리, 이트레, 코라디, 웨마, 미디어셋, 라바920 등과 같은 세계 일류 브랜드 제품들을 디자인했다.

